

文化景觀論에 의한 都市景觀의 解釋理論 및 技法**

黃 琪 源*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文化景觀概念에 의거한 都市 景觀의 解釋 |
| II. 都市景觀의 主要理論 | V. 結 論 |
| III. 文化景觀概念 | |

I. 序 論

都市는 人類가 모여살기 위해 만들어낸 고유한 定住環境이다. 이 定住環境은 自然環境을 素地로 한 人工環境으로서, 무엇보다도 巨視的으로는 都市의 다양한 活動을, 微視的으로는 市民 각자의 삶을 담아주고 받쳐주는 그릇(容器, container)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景觀의 定義가 그러하듯 人間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항상 都市景觀 “속”에 있고, 역으로 都市環境은 항상 人間을 “둘러싸고” 있다.⁽¹⁾

한편 都市는 그릇, 또한 環境으로서의·속성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人間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습, 또는 景觀으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都市의 景觀, 즉 都市景觀은 都市라는 존재의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고, 都市에 사는 人間의 공통된 生活方式, 즉 文化가 표현되고 축적된 文化景觀이다.

이와 같은 文化景觀概念으로서 景觀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살펴보면, 20세기 초에 地理學分野에서 文化景觀概念이 형성된 후 수십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 이르러 소수의 學者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어 여러 유형의 景觀을 대상으로 하여 景觀을 解釋하는 手段的 概念으로서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景觀은 人間の 손에 의해 自然景觀으로 부터 文化景觀으로 文化化되어 간다고 보며, 文化景觀을 人間の 文化가 기록되고 축적되어 있는 “책”에 비유한다. 그래서 책을 읽듯이 文化景觀을 읽음으로써 文化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發想은 우리 주변의 景觀이 점차 낯설고 알기 어려운 대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助教授

** 本 研究는 1983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 [D.W. Meinig] (1979), “Introduction”,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ed. D.W. Meinig,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p. 3.

원인 중에서 景觀의 變化 규모와 속도가 지나친 점과 變化要因이 주로 經濟的, 工學的 基準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解決의 한 代案으로서 등장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아직 적용 理論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고, 적용對象이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設計에 관련된 操作的, 實用的 水準에 까지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文化景觀 중에서도 가장 文化化되어 있고 複合的인 都市景觀의 解釋과 設計를 위한 研究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이 方法의 결함으로서 解釋方法이 客觀的이기 보다는 主觀的이고, 說明的이기 보다는 密敎的이며, 自律的이기 보다는 敎條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都市景觀의 특성인 景觀의 普通性和 歷史性的 重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릴 수 있고 都市景觀의 단순한 外形보다는 숨어있는 참모습을 찾고자 하며,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文化複合의 전모를 洞察에 의해 看破하고자 하고, 그래서 都市景觀體驗의 恒常성을 유지하여 都市에 있어 人間疎外現象을 완화할 수 있는 設計接近方法의 內實化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 研究는 이러한 文化景觀概念의 重要성에 착상하여 기존의 理論들을 정리, 소개하고, 都市景觀에 적용할 수 있는 理論的 根柢를 마련하며, 實用的 解釋技法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試案을 제시하는 데에 그 意義와 目的이 있다.

II. 都市景觀의 主要理論

都市景觀이라는 述語는 語源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townscape라는 英語의 번역어로 보이며, 따라서 landscape概念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생겨난 것이라고 하겠다. 보통 townscape라고 하면 land+scape에서 정립된 -scape라는 接尾辭의 의미를 수용하여 landscape of town 또는 town's landscape라는 의미를 가진 合成語로서 만들어진 術語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town이라는 接頭辭가 그러하듯 「유럽」이라는 地域的 根源을 암시하고 있다.

都市景觀(townscape)을 定義하는 일은 Gerald Burke의 말대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townscape에 관한 여러가지 定義를 정리, 요약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는 都市景觀을 視覺的 構成(visual composition)으로서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都市環境을 구성하는 建物, 構造物등을 人工要素와 山, 水面, 樹木등의 自然要素가 人間의 눈에 知覺되는 상태를 都市景觀이라고 정의하는 입장이며, 여러 要素의 構造나 機能보다는 外觀(appearance)에 관심을 둔다. 視覺的 構成으로서의 都市景觀은 要素 낱낱의 外觀 뿐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集體的 外觀에 더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태 뿐 아니라, 美的인 次元의 外觀에 더 관련이 있다.

둘째는 都市景觀을 空間的 構成(spatial composition)으로서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都市環境을 구성하는 여러 要素의 個別外觀 및 集合外觀보다는 要素들이 형성하는 空間

(특히 外部空間)의 質과 量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空間들로 구성되는 어떤 상태를 都市景觀이라고 본다. 이 방법에 의하면 都市는 그릇에 비유된다. 물이나 음식을 담기 위해 그릇이 필요하듯 우리의 生活을 담기 위해 그릇이 필요하며, 이러한 낱알의 작은 그릇이 모여서 형성된 集合體가 都市空間이고, 이 空間을 質과 量의 기준으로써 이해한 결과가 都市景觀이다.

세째는 都市景觀을 文化景觀(cultural landscape)으로서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이것은 都市라는 존재를 文化要素 내지 文化複合으로 파악하며, 또 人間의 공통적인 生活方式인 文化的 記錄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都市景觀을 文化화된 景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와 더불어 都市景觀을 歷史景觀이라는 概念으로서도 이해하며, 특히 普通景觀에 관심을 둔다.

네째는 都市景觀을 人間의 意思傳達行爲 및 그 過程(communication process), 즉 人間의 交通의 容器이자 空間적인 틀로서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都市景觀을 포함한 모든 景觀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非言語的 傳達媒體(non-verbal communication media)로서의 역할을 하고, 人間이 日常生活의 매순간 제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景觀의 傳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역으로 傳言이 명확한 景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III. 文化景觀概念

1. 文化景觀의 定義

文化景觀(cultural landscape)라는 概念에 대해서 미국 地理學者 Carl O. Sauer가 1925년에 쓴 논문 "The Morphology of Landscape"에서 定義한 것이 古典的인 定義일 것이다.⁽²⁾ 그는 먼저 景觀을 "物理的인 形態와 文化的인 形態가 뚜렷이 연관되어 있는 地域"이라고 定義하였으며, 特定人에 의해 眺望되는 特定風景이 아니고 이러한 개별적인 特定風景을 다수 관찰하여 귀납적으로 추상화한 일반적인 風景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景觀은 人間의 손이 닿지 않은 原生의 自然景觀(natural landscape)에서 출발하여 점차 人工의 文化景觀으로 전환되어간다고 주장하였다.

이 文化景觀 概念을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文化景觀은 環境이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條件과 人間의 意志가 대응하면서 相互調整된 過程을 반영하고 있다.⁽³⁾ 그러므로 文化景觀은 人間이 공유하는 生活方式, 또는 生活樣式, 또는 生活의 設計이기도 한 文化가 구현된 것이기도 하고, 또는 文化的 한 국면인

(2) Carl O. Sauer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Land and Lif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ed. John Leighl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3, pp. 315-350.

(3) Robert Z. Melnick, "Capturing the Cultural Landscape," *Landscape Architecture*, Jan. 1981, pp. 56-57.

物質文化 자체이기도 하다.

둘째, 文化景觀은 일시에, 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조성되는 것이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다. 즉 文化景觀은 歷史景觀(historic landscape)이다.

셋째, 文化景觀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文化를 구현하는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普通性이 특징이다. 즉 文化景觀은 普通景觀(ordinary landscape)이기도 하다.

이 概念은 環境決定論에 대항하여 人間이 物的 環境을 操作·變化하는 能動的인 主體로 보는 立場에서 형성된 것으로서⁽⁴⁾ 理論的인 缺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地理學 本領 보다는 오히려 景觀論 分野에서 基本概念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 文化景觀 概念의 發展過程

文化景觀論은 20세기 초에 地理學 分野에서 이른바 文化地理學派 또는 景觀學派가 등장하면서, 主觀的인 景觀論에서 客觀的인 景觀論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理論化過程을 거치게 되었다.

가. 主觀的인 景觀論

영어에서 현재 표기되는 landscape는 中世에는 *landscipe*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特定領主에 의해 지배되는 일정한 區域, 또는 特定集團의 사람이 거주하는 일정한 區域”을 뜻하였다.⁽⁵⁾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표기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르네상스」 時代에 들어서 「유럽」의 世界觀이 垂直的인 宇宙(vertical cosmos)로 부터 水平的인 景觀(horizontal landscape)으로 전환된 文化變動과⁽⁶⁾,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홀란드」의 畫家들이 風景畫(*landscap painting*)이라는 새로운 繪畫樣式을 창출해 낸 文化變動에 기인한다고 본다.⁽⁷⁾ 특히 前者는 人間의 關心을 神 中心의 來世에서 人間 中心의 現世로 전환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고, 後者는 이 景觀에 藝術的인 價値를 부여하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나. 地理學分野에 있어 景觀學派의 客觀的인 景觀論

景觀이 主觀的인 實存風景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客觀的인 實體”로서 파악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地理學 分野에서 景觀學派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學派는 「유럽」大陸의 국가에서 비롯되었던 바, 20세기 초에 독일의 Otto Schlüter, 불란서의 Jean Brunhes등이 제창하였고, 그 후에 미국으로 전파되어 Carl O. Sauer를 위시한

(4) [Paul W. English and Robert C. Mayfield], “The Cultural Landscape,” *Man, Space and Environment: Concept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ed. Paul W. English and Robert C. Mayfiel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2, p. 4.

(5) Marvin W. Mikesell,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8,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1968, p. 576.

(6) Yi-Fu Tuan,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4, pp. 133-134.

(7) Marvin W. Mikesell, *op. cit.*, p. 576.

이른바 Berkeley 地理學派등이 理論體系를 정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⁸⁾

다. 景觀論者の 景觀解釋論

이와 같은 文化景觀概念은 Sauer 死後 美國 地理學 分野에서는 무시되거나 거의 망각된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소수의 學者, 또는 文明批評家들에 의해 景觀을 解釋함에 있어 유용한 道具概念으로서 再照明을 받게 되었다. 이 部類의 先覺者는 영국의 W.G. Hoskins, 미국의 J.B. Jackson등이며, 後進으로서는 David Lowenthal, D.W. Meinig, Peirce F. Lewis, Yi-Fu Tuan등을 들 수 있다. ⁽⁹⁾ 이들의 理論形成과 學派形成의 과정을 살펴 보면 英美系統의 學界에서 무시되고 있는 文化景觀論을 발굴, 활성화했던 점과, 처음에는 서로 明示된 提攜意識이 없이 각자가 다양한 文化景觀을 대상으로 하여 理論 適用—實驗—理論 再整理의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同類化해 간 점을 들 수 있다. ⁽¹⁰⁾ 이들의 研究對象을 보면 巨視的으로 한 國家 또는 한 地域 전체의 文化景觀을 解釋하는 경우(Lowenthal등), 또는 微視的으로 景觀을 구성하는 要素 중에서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것, 예를 들어 街路, 住宅, 庭園, 車庫, 看板등과 같은 文化景觀[要素]를 解釋하는 경우(Hoskins, Jackson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文化景觀에 공통되는 接近方法, 態度, 原則등을 연구한 경우(Meinig, Lewis, Tuan등)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都市景觀을 文化景觀의 觀點에서 포괄적으로 解釋하는 事例 및 方法論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文化景觀으로서의 都市景觀

文化景觀은 人間의 손이 닿은, 즉 文化화된 景觀(cultured landscape)이다. 한편 文化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生活方式이며, 都市는 이 生活方式이자, 生活方式에 의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文化要素 내지 文化複合이며, 이 生活方式이 기록되는 곳이다. 따라서

(8) Robert E. Dickinson, *Regional Ecology: The Study of Man's Environ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pp. 25-29; Paul W. English and Robert C. Mayfield, *op. cit.*, pp. 4-5; Marvin W. Mikesell, *op. cit.*, pp. 576-577.

(9) 이들의 주요 著書와 研究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W.G. Hoskins,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Ltd., 1955; J.B. Jackson, *The Necessity for Ruins*, Amherst, Mass.: The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80; Ervin H. Zube (ed.), *Landscapes: Selected Writings of J.B. Jackson*, Amherst, Mass.: The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70; David Lowenthal and Hugh C. Prince (1964), "The English Landscape," *The Geographical Review*, 54, No. 3, pp. 309-345; David Lowenthal (1968), "The American Scene," *The Geographical Review*, 58, No. 1, pp. 61-85; D.W. Meinig (1976), "The Beholding Eye," *Landscape Architecture*, 66, Jan. 1976, pp. 47-54; Peirce F. Lewis (1976),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30, Sep. 1976, pp. 6-9; Yi-Fu Tuan,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4.

(10) W.G. Hoskins의 研究가 이 分野 研究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J.B. Jackson이 1951년에 창간하여 1968년에 編輯權을 넘긴 *Landscape*이라는 잡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9년에 출판된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 Press)에 이 분야의 주요 연구가 정리되어 있다. Hoskins와 Jackson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서는 上掲書, pp. 195-244 및 Helaine Kaplan Prentice, "John Brinckerhoff Jackson," *Landscape Architecture*, Nov. 1981, pp. 740-746을 참고하라.

都市景觀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합적인 文化景觀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都市景觀은 文化景觀일 뿐 아니라 歷史景觀(historic landscape)이기도 하다. 文化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how) 공통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歷史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what) 공통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¹¹⁾ 歷史의 時間的 事實이 文化라면, 文化의 空間的 事實이 文化景觀이다. 그리고 文化의 時間的 蓄積이 歷史라면 文化의 空間的인 蓄積이 歷史景觀이다. 우리가 흔히 歷史景觀이라고 하면 文化財를 연상하게 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都市景觀은 時間의 長短에 관계없이 歷史景觀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都市景觀은 文化景觀이면서 歷史景觀일 뿐 아니라 普通景觀(ordinary landscape)이다. 都市를 구성하는 要素의 대부분은 無名, 또는 匿名의 非專門家에 의해 構想, 制約되며, 構造, 機能, 材料, 工法 등이 通常의인 水準에서 이해되는 것들이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message)도 直說的이며 通常의이다. 다시 말해서 普通사람의 日常的인 生活과 體驗을 위해 꾸며진 것이 都市景觀이라는 뜻이다.

IV. 文化景觀概念에 의거한 都市景觀의 解釋

1. 發想：景觀의 解釋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解釋方法에 대한 뚜렷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없다. 여기에는 이 계통의 學者들이 통상적인 學問體系와 方法을 불신하고, 의도적으로 “참신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했던 까닭도 있으나⁽¹²⁾, 이 방법이 본질적으로 主觀的이고 直觀的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解釋方法을 체계화할 수 없었던 점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學者들은 景觀解釋의 技法을 보편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方法論의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용한 發想(conception)을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讀書와 景觀의 解釋

Mae Thielgaard Watts 등의 주장에 의하면 人間은 마치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景觀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¹³⁾ 이 경우 景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日常的인 세계를 구성하는 普通의 事物이 가진 文化的인 意味를 理解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¹⁴⁾ 이런 관점

(11) Philip Bagby, *Culture and Histor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58, p. 24, p. 124.

(12) Peirce F. Lewis (1976),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pp. 20-22; Helaine Kaplan Prentice, *op. cit.*, p. 741.

(13) Mae Thielgaard Watts, *Reading the Landscape: An Adventure in Ecology*, New York: Macmillan, 1957.

(14) Peirce F. Lewis, *op. cit.*, p. 14.

에서 보면 景觀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저술한 공동의 自叙傳이고, 무의식 속에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진실된 수준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價値, 好惡, 喜怒哀樂이 기록된 景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는 發想이다.

그러나 景觀을 읽는다는 일은 책을 읽는다는 일만큼 쉽지 않다. 책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著者が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그 著者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줄거리와 주장을 일관된 文法과 文章術에 의거하여 써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出版社, 印刷所, 製本所가 있어 책의 규격도 일정하고, 落帳, 破本도 없으며, 部數도 이론적으로 무한하다. 일단 출판되면 改訂版이 나올 때까지는 이 모든 것이 지속된다. 반면에 景觀은 著者が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럿 있으며,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고쳐쓰고, 갈아끼고, 짚어버린 책이다. 그리고 줄거리나, 주장이나, 문법이나, 문장술도 일정하지 않으며, 印刷本이 아닌 筆寫本이며, 唯一本 내지 稀貴本이다. 不特定多數의 共同所有이므로 누구나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보태거나 뺄 수도 있으며, 개칠과 낙서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景觀은 책은 책이되, 쉽게 읽게끔 만들어진 책은 아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책을 읽고, 뜻을 알고, 동의를 하자면 보통 이상의 讀解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지각색의 文法과 文章術에도 통달해야 하고, 古語, 死語, 隱語, 外來語 등에도 익숙해야 할 것이며, 뒤죽박죽 빠뜨리고 덧붙인 부분을 꼼꼼히 헤쳐 가면서 숨어있는 원래의 줄거리를 캐내어야 할 것이다. 名筆의 글씨에 못지않게 어린이의 글씨도 중요하고, 印刷된 글에 못지않게 은밀히 적어놓은 몇 마디 落書도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때로는 돋보기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을 덮어놓고 冥想과 思索을 통해서 숨은 뜻을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읽기 어려운 책을 읽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자면 實力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읽고자 하는 意慾도 필요하다.

景觀을 解釋하는 일—우리가 보는 日常의 世界를 구성하는 보통의 事物을 文化的으로 理解하는 일—도 이러한 책을 讀解하는 일과 흡사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文盲者라고 하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 當者は 몹시 부끄럽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만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環境에 대해서, 그리고 景觀에 대해서 “文盲”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文盲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¹⁵⁾

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읽고 싶지 않거나,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있으며, 이런 때에는 꼭 읽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읽다가도 심증이 나면 덮어버리고 만 책을 펼쳐 놓

(15) 만드시 景觀에 관한 見解라고는 할 수 없으나, Dondis는 사람들의 視覺의 “文盲”(visual illiteracy)상태를 논하고 있다. Donis A. Dondis (1973), *A Primer of Visual Literac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고 읽어도 된다. 그러나 景觀은 우리의 生存과 직결된 環境의 한 국면이므로 景觀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극단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거북한 경우가 있게 된다.⁽¹⁶⁾ 그러므로 景觀에 대한 文盲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며,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빨리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景觀盲”을 극복하자면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 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景觀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景觀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과학적이고 보편적인—은 개발,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 까닭으로서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景觀이라는 대상의 正體를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景觀이라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일천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景觀을 解釋하는 올바르게 쉬운 방법을 연구해서 대중에게 보급하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고, 보급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누구나 그 방법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면 올바르게 쉬운 방법이 개발, 보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거나 잊어버리고 지내는 대신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을까? 한 가지 대안으로서, 解釋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術學的이거나 密敎的인 수준에 있더라도 소위 專門家들이 景觀을 解釋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나. “無聲映畫”(silent film)의 解說과 景觀의 解釋

景觀이 쉽게 읽게끔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비유를 한결음 발전시키면, 1927년에 오늘과 같은 有聲映畫(talkie film)이 발명되기 이전까지 있었던 無聲映畫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줄거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분명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臺辭나 音響이 없이 映像만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字幕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辯士와 樂團이 있어 소리를 대신하였던 역사가 있다.

景觀은 마치 無聲映畫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소리없이 몸짓으로써만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나 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映畫는 監督이나 俳優가 일정치 않으며, 제목과 줄거리가 서로 다른 여러 장면을 그럭저럭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뒤죽박죽 얽힌 無聲映畫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필름」을 다시 여러 토막으로 되나눌 수도 없고, 原作者에게 줄거리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으므로, 가장 쉽고 재미나는 방법으로서 辯士를 동원하는 길이 어떨까? 무대 옆에 서서 畫面에 맞추어 혼자서 對話를 주고 받으며, 온갖 效果와 感情까지 표현함으로써 관객을 웃기고 울리던 辯士가, 어차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해석한다고 해서 共感을 사기 어려운 景觀이라는 뒤엎힌 無聲映畫를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우는 훌륭한 媒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6)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傳達媒體로서의 都市景觀論과 상응한다.

2. 前提 : Lewis의 公理

Peirce F. Lewis는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라는 論文에서 景觀을 읽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는 몇가지 經驗的인 原則을 “公理”(axiom)라는 이름을 붙여 정리하였다.⁽¹⁷⁾ 이 原則들은 그가 美國의 文化景觀을 관찰한 결과에서 추출된 것들이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文化景觀에 대한 관찰이 희소하므로 불분명하지만, 解釋技法의 開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소개하기로 한다.

가. 景觀은 文化를 이해하는 端緒다. 즉 일상적이고 보통의 景觀 속에 文化가 반영되어 있다.

가-1. 文化變動 : 文化景觀의 모습(look)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이는 文化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가-2. 文化領域 : 한 地域의 文化景觀이 다른 地域의 文化景觀과 다르면, 이는 두 地域의 文化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가-3. 文化收斂 : 두 地域의 文化景觀이 같아지면, 이는 두 地域의 文化가 收斂함을 암시한다.

가-4. 文化傳播 : 한 地域의 文化景觀은 다른 地域의 文化景觀을 모방함으로써 변화하는데, 이를 통해 文化傳播를 관찰할 수 있다.

가-5. 文化의 趣向 : 특정한 趣向(taste)은 특정한 文化景觀을 창출하며, 文化景觀에 나타난 趣向을 연구함으로써 그 文化를 이해할 수 있다.

나. 文化의 單一性和 景觀의 平等性

文化는 海面上에는 각각 다른 여러 덩어리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한 덩어리인 氷山처럼 單一體다. 그리고 文化景觀을 구성하는 모든 要素는 文化를 반영하는 端緒라는 기준에서 볼 때 중요성에 있어 평등하다.

다. 日常性

普通景觀은 통상적인 學問研究方法(conventional academic means)으로서는 연구하기 어렵다. 오히려 商業雜誌, 廣告, 觀光案内등과 같은 非學術的 文헌등을 통해서 연구되고 있다.

라. 文化와 歷史

現代의 文化景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歷史를 개입시켜야 한다.

라-1. 歷史의 양극(historic lumpiness) : 전쟁, 공황, 발명등과 같은 비약을 거쳐 돌변적인 文化變動이 일어나면 景觀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變動 이전의 景觀要素가 變動 후에도 상당히 남아있게 된다.

라-2. 技術上的 뒷받침 : 어떤 景觀 또는 景觀要素의 중요성을 이해하자면, 그것을 실현

(17) Peirce F. Lewis, *op. cit.*, pp. 11-32.

시킨 技術과 「커뮤니케이션」수단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 地理的(生態的) 脈絡

어떤 文化景觀의 要素는 반드시 地理的(立地的) 脈絡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바. 環境 統制

모든 文化景觀은 物的 環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文化景觀을 解釋하자면 物的 環境에 대한 기초적인 知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 景觀의 模糊性

景觀 속에 있는 대부분의 事物은 모든 종류의 “이야기”(message)를 전하고 있지만, 워낙 景觀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

3. 解釋方法 試論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를 정리하여 假說的인 단계이긴 하지만 文化景觀解釋技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市民에 의한 直接解釋

都市景觀의 實需要者(direct users)인 市民이 都市景觀을 解釋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技法들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Watts의 理論을 수용하여 讀書術에 견주어 본 景觀解釋技法이다.

① 基本條件

- 文法, 文章術, 語彙에 관한 理解: 都市景觀을 구성하는 要素, 要素의 機能 및 意味 要素간의 關係등에 관한 기초 지식
- 多讀과 多商量: 都市景觀에 대한 많은 觀察과 思考
- 一冊과 관련된 文化: 都市文化를 중심으로 한 文化複合에 관한 전반적인 理解
- 讀書慾과 向學熱: 都市景觀에 대한 文盲狀態에 대한 부끄러움과 克服慾

② 方法

- 公理에 대한 理解와 適用
- 觀察, 思考, 說明(對話, 作文)의 반복
- 同一, 類似要素의 반복성 및 相異要素의 독자성 발견

나. 專門家에 의한 間接解釋

都市景觀의 實需要者인 동시에 製作者인 專門家들이 都市景觀을 解釋하는 目的은 設計專門作業에 필요한 情報의 수집 및 市民의 解釋 誘導 내지 補助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技法들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無聲映畫의 辯士”理論에 견주어 본 景觀解釋技法이다.

① 基本條件

- 專門家로서 갖출 素養: 앞에서 제시한 直接解釋의 條件
- 景觀에 대한 愛着

—說得力: 어려운 解釋結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

② 方法

—앞에서 제시한 直接解釋의 方法

—보다 심오한 觀察 및 思考

—각 景觀要素에 대한 文化史的 考察

—洞察에 의한 假說的 解說의 檢證

4. 方法論上的 特徵

가. 普通景觀에 대한 關心

文化景觀은 文化가 반영되어 있는 景觀인데, 이 文化는 어떤 特定階層에 의하거나, 特定階層을 위한 文化는 아니고, 普遍的이고 不特定多數인 大衆文化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의하는 文化景觀은 본질적으로 普通景觀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都市景觀은 普通景觀의 속성이 보다 뚜렷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흔히 이러한 普通景觀은 보기 흉한(ugly)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Robert Venturi 등은 普通景觀이 보기 흉한 것 이상의 價値와 重要性이 있음을 설득력있게 역설한 바가 있다.⁽¹⁸⁾ 일반적으로 普通景觀이라고 하면 그 景觀을 구성하는 要素가 建設過程의 관점에서 볼 때 평범한 材料, 工法등을 썼고, 현재 통용되는 産業構造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건실하며 경제적으로 만들어졌다는가, 또는 각 要素가 무엇을 象徵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聯想이나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景觀은 대개 特定 藝術家나 專門家에 의해 의도적으로 藝術作品 내지 專門品으로 만들어진 要素보다는 무명, 또는 익명의 一般大衆에 의해 평범한 生活의 手段으로서 만들어진 要素로써 채워지며, 또 일시에 갑자기 만들어지기 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스스로 만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景觀의 內在性에 대한 關心

設計行爲, 建築行爲등 소위 景觀에 변화를 초래하는 人間의 行爲를 단순히 匠人에 의한 創作行爲로 보지 않고, 광범위한 文化行爲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景觀의 겉모습 보다는 景觀에 내재하고 있는 生活方式, 價値觀, 趣向등에 관심을 가지며, 景觀의 特性과 變化樣相은 단순히 겉모습의 特性과 變化가 아니고 文化的 特性과 變化로서 파악하게 된다.

다. 洞察의 중요성

이 方法은 景觀을 科學的으로, 計量的으로 分析하는 것이 아니고, 藝術的으로, 質的으로 看破하려는 方法이다. Virgil C. Aldrich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事物을 체험하고자 할 때

(18)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and Steven Izenour, *Learning from Las Vega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7, Part II, pp. 128-163.

일상적으로는 未分化된 知覺(holophrastic perception)에 의해 그 事物을 材料的 事物(material thing)로 받아들이나, 이 과정을 분석하면 科學的 觀察(observation)을 통해 事物을 物理的 對象(physical object)으로서 이해하는 과정과, 看破(prehension)에 의해 事物을 美的 對象(aesthetic object)으로서 파악하는 과정으로 나뉘지며, 이 두 局面은 서로 兩立할 수 없다고 한다.⁽¹⁹⁾ 여기에서 後者의 看破에 의해 事物을 파악하는 태도가 이 論文에서 제시하는 景觀解釋技法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해 보면 觀察이 對象事物에 性質을 부여하는(to qualify) 행위이며 觀察의 결과는 事物의 性質(disposition)임에 비해서, 看破는 事物에 生氣를 부여하는(to animate) 행위이며, 看破의 결과는 事物의 局面(aspects)이다.

그러므로 “洞察”(insight)에 의해 景觀의 겉질을 꿰뚫고 속모습을 찾아내며, 동시에 그 景觀에 사람의 삶과 관련되는 生氣를 불어넣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方法은 마치 畫家들이 긴 苦惱의 시간을 가진 후 단숨에 한 폭의 山水畫를 그려 내는 作畫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여기는 “氣韻生動”과도 일맥상통한다.⁽²⁰⁾

라. 體驗의 恒常性 유지

景觀은 文化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게 되지만, 景觀을 구성하는 모든 要素가 변하지 않고, 일부는 불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景觀의 變化樣相을 어떻게 受容하느냐라는 것이 景觀을 변하게 하는 設計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됨은 당연하다. 즉 어떤 要素를 변화시키고, 어떤 要素를 존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현재의 都市景觀은 그 變化의 규모와 속도가 지나쳐서 사람이 都市의 主人이 아니고 낯선 손님처럼 되어버리는 疎外現象이 문제가 되므로, 景觀의 體驗에 있어 恒常性を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그래서 文化景觀이라는 관점에서 都市景觀에 대해 解釋을 하게 되면 단순히 經濟的, 또는 工學的 基準에 의해 景觀의 變化樣相을 결정지어버리는 위험을 완화하게 되므로 體驗의 恒常性を 유지하고 疎外現象을 방지, 해소하여 變化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는 設計의 接近方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V. 結 論

文化景觀概念은 地理學 分野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景觀解釋作業의 手段의 概念으로서 원용되고 있다. 외국의 研究實績을 보면 文化景觀의 定義, 景觀解釋에 있어 手段의 概念으로서의 有意性에 대한 論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技法은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고, 적용 대상 역시 景觀을 구성하는 要素에 국한되어 있다.

(19) V.C. 울드리치(1963), 「藝術哲學」, 金文煥(譯), 서울: 玄岩社, 1975, pp. 37-59.

(20) 白承吉(編譯), 「中國藝術의 世界」, 서울: 悅話堂, 1977, pp. 109-111; Harold Osborne, *Aesthetics and Art Theory: An Historical Introduction*,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70, pp. 110-117.

본 研究은 기존의 여러 理論들을 정리하여 都市景觀解釋에 적용할 수 있는 論據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實用的 解釋技法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試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過程을 거쳐 얻은 잠정적인 結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都市景觀을 解釋하는 概念으로서는 적절하고 우수한 점이 있으나, 技法을 一般化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타난다. 즉 이 接近方法이 普通景觀 및 그 景觀에 內在하고 있는 特性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적용對象이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장점인 동시에 한계로 나타난다. 그리고 “洞察”에 의한 讀解, 辯士型的 技法도 景觀을 깊이, 재미있게 解釋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普遍性이 결여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解釋에 있어 어느 景觀이 어떤 文化를 이야기하느냐라는 방향과, 어떤 文化가 어느 景觀을 빌어 이야기하느냐라는 방향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前者의 경우는 特定景觀에 국한된 解釋과, 나아가서 設計는 變化를 操作하는 行爲의 準據가 되기 때문에 實用性이 강하나, 類似景觀과의 비교, 相異景觀과의 비교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獨斷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한편 後者の 경우는 設計등과 같은 즉각적인 操作行爲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입장에서 文化와 景觀과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융통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 試圖해 본 景觀解釋의 接近方法이 實用化되자면 理論的인 探究와 蘊蓄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거니와, 특히 많은 事例研究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어찌면 상당히 非科學的일 수 있는 洞察, 讀解, 辯士등과 같은 技法을 반드시 科學化할 필요는 없겠으나, 보편적인 水準에서 實用化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Bagby, Philip, *Culture and History*,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58.
2. Dickinson, Robert E., *Regional Ecology: The Study of Man's Environ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3. Dondis, Donis A., *A Primer of Visual Literac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3.
4. English, Paul W. and Mayfield, Robert C. (ed.), "The Cultural Landscape," *Man, Space and Environment: Concepts in Contemporary Human Geograph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2.
5. Hoskins, W.G., *The Making of the English Landscape*,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Ltd., 1955.
6. Jackson, J.B., *The Necessity for Ruins*, Armherst, Mass.: The Univ. of Massachusetts

- Press, 1980.
7. Lewis, Peirce F., "Axioms for Reading the Landscape,"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8. Lowenthal, David, "The American Scene," *The Geographical Review*, 58, No. 1, 1968.
 9. Lowenthal, David and Prince, Hugh C., "The English Landscape," *The Geographical Review*, 54, No. 3, 1964.
 10. Meinig, D.W., "The Beholding Eye," *Landscape Architecture*, 66, Jan. 1976.
 11. Meinig, D.W. (ed.), "Introduction,"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12. Melnick, Robert Z., "Capturing the Cultural Landscape," *Landscape Architecture*, Jan. 1981.
 13. Mikesell, Marvin W.,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8,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1968.
 14. Osborne, Harold, *Aesthetics and Art Theory: An Historical Introduction*,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70.
 15. Prentice, Helaine Kaplan, "John Brinckerhoff Jackson," *Landscape Architecture*, Nov. 1981.
 16. Sauer, Carl O., "The Morphology of Landscape," *Land and Life*, John Leighly (ed.),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3.
 17. Tuan, Yi-Fu, *Topophili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4.
 18. Venturi, Robert; Brown, Denise Scott; and Izenour, Steven, *Learning from Las Vega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7.
 19. Watts, Mae Thielgaard, *Reading the Landscape: An Adventure in Ecology*, New York: Macmillan, 1957.
 20. Zube, Ervin H. (ed.), *Landscapes: Selected Writings of J.B. Jackson*, Amherst, Mass.: The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70.
 21. V.C. 올드리치, 「藝術哲學」, 金文煥(譯), 서울: 玄岩社, 1975.
 22. 白承吉(編譯), 「中國藝術의 世界」, 서울: 悅話堂, 1977.